

한국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과 개선 과제*

김봉근**

- I. 머리말
- II.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 III. 고대 산성 보존·정비 및 활용의 한계
- IV.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언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6개 산성을 대상으로 조사와 정비의 선후관계, 정비 방식과 원형 보존 수준, 활용의 내용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한국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에서는 고고학 조사와 충분한 고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가 먼저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외형 중심의 복원과 현대적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원형과 장소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설계·시공의 연계 부족으로 정비의 적절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활용 측면에서는 일부 산성에서 비교적 활발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업 수가 제한적이고 산행·체험 중심의 획일적 형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은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원형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한편, 각 산성의 역사적

* 본 논문은 무안군과 대한문화유산연구원이 주최·주관한 ‘무안 봉대산성 문화유산 지정과 보존·활용 전략’ 국제학술대회(2024년 12월 6일)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aizim4620@hanmail.net.

의미와 장소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활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대 산성, 보존·정비, 활용, 성곽유적, 문화유산

I. 머리말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의 목적 역시 단순한 소비와 유희를 넘어 문화적 가치의 향유와 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 정책 또한 과거와 같이 보존만을 강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활용의 활성화를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류호철, 2014: 5).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2021년 제정·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다. 이 법령은 역사문화권의 정비와 육성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¹⁾ 즉, 문화유산은 단지 보호와 관리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향유되고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할 자산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은 더 이상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보존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과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의 원형을 충분히 고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정비와 복원이 적지 않으며(윤성호, 2019: 138), 활용 역시 문화유산의 역사적 성격과 장소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에 치중한 단기적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이한용, 2017a: 308). 이러한 문제는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와 진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별 유적의 정비 사례나 활용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존·정비와 활용을 상호 연계된 문제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산성은 한국 고대의 정치·군사·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대부분이 산악 지형과 결합되어 있어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4. 2. 13. 개정, 2026년 4월 15일 검색, <https://www.law.go.kr/법령/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

보존·정비와 활용의 방식이 다른 유적군에 비해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산성의 보존·정비와 활용은 단순한 시설 정비 차원을 넘어 유적의 진정성 확보와 장소성 재현, 이용자 경험의 구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산성의 보존·정비와 활용은 개별 시설의 복원이나 탐방 기반의 조성에 국한될 수 없으며, 조사와 연구를 기초로 하여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구조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관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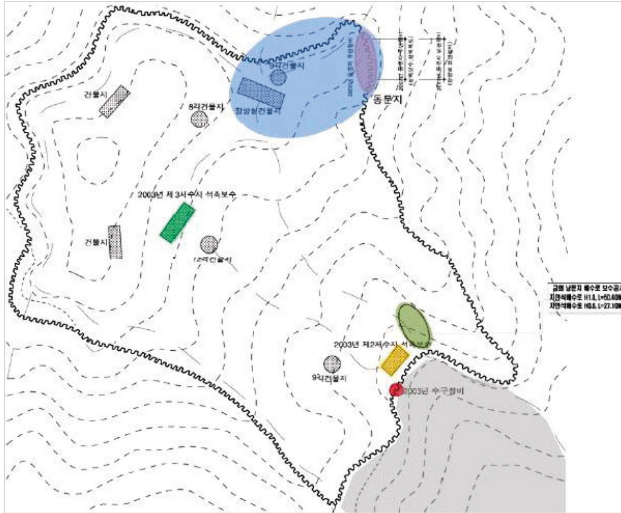
II.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1990년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의 확보와 지역의 문화유산 정비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성곽유적에 대한 보수·정비 및 활용 사례 또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성과 읍성 등 성곽 유적은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유재춘, 2020: 216). 그 결과 성곽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각종 활용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와 활용의 확대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일부 유적에서는 고고학 조사와 충분한 고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와 복원이 이루어져 원형 훼손과 왜곡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활용 또한 유적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프로그램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조사와 정비의 선후관계, 정비 방식과 원형 보존 수준, 활용의 내용과 지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6개 산성을 선정하여, 이 세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의 해발 209m 이성산에 위치한 포곡식 산성(전체 둘레 약 1665m)이다. 이 산성은 1985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86~2022년까지 총 15



[fig 1] 하남 이성산성 정비
현황도(한울문화재연구원,
2019)
Map Showing the Current
Status of Maintenance
Work at Hanam
Iseongsanseong Fortress

차례에 걸친 고고학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9차례의 보존·정비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성산성은 지속적인 고고학 조사 성과를 통해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성내에서는 팔각건물지와 수구, 집수지 등 다수의 유구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산성 전면부에는 광장이 조성되었다. 특히 성벽과 관련된 정비는 2003년에 남성벽, 2007년 동문지, 2023~2024년 서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성벽의 정비가 원래의 높이를 임의로 추정하여 복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당시 확인된 잔존 높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원형 보존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정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성산성의 정비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정비 유구와 산성 내외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안신원, 2018: 243). 그러나 2019년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유적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가 다시 추진되었다(한울문화재연구원, 2019). 이처럼 이성산성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 성과를 축적한 뒤 정비를 시행하고, 이후 관리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 과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성산성은 발굴조사 이전에 성벽의 해체·보수와 같은 대규모 정비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22년까지의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유구를 무리하게 복원하기보다는 노출 전시하거나 보호 펜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발굴조사와 보존·정비가 상호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이성산성은 한국 고대 산성 가운데 조사와 정비가 비교적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

행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윤성호, 2021: 278).

[table 1] 하남 이성산성 조사 및 정비·활용 현황 Current Status of Investigation,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Hanam Iseongsanseong Fortress

Category	Year	Description	Institution
Investigation	1985	Surface survey	Hanyang University Museum
	1986	Investigation of a rectangular building site, a nine-sided building site, stone-alignment features, and storage pits	
	1987	Investigation of the secondary reservoir and an octagonal building site	
	1990	Investigation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reservoirs, nine- and twelve-sided building sites, and a rectangular building site	
	1991	Investigation of the secondary reservoir	
	1997	Investigation of the eastern section of the southern fortress wall and the secondary reservoir	
	1998	Investigation of the southern fortress wall near the primary reservoir and the reservoir in Area C	
	1999	Investigation of the fortress wall in Area A and the reservoir in Area C	
	2000	Investigation of the southern wall in Area A, the reservoir in Area C, and building sites	
	2001	Investigation of building sites, the east gate site, and drainage facilities	
	2002	Investigation of the eastern fortress wall section and a projecting bastion	
	2004	Investigation of building sites, drainage facilities, the east gate site, and the inner wall	
	2010	Investigation of an ondol heating facility, firing features, foundation stone alignments of pit dwellings, a presumed culvert, and tile drains	
	2016	Investigation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fortress walls, access facilities, and the west gate site	
	2020	Investigation of the west gate site and stone-lined tombs	
	2022	Investigation of the west gate site and related features	
Maintenance plan	2019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Iseongsanseong Fortress	Hanul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1986	Restoration of foundation stones at the rectangular building site, grass planting, and fence installation	Hanam City
	1987	Grass planting and fence installation at the octagonal building site	
	1990	Grass planting and fence installation at the twelve-sided building site	
	1991	Grass planting and fence installation at the secondary reservoir	
	2002	Grass planting and stone-wall repair at the secondary reservoir	
	2003	Repair of stone revetments at the sluice of the southern wall and the second and third reservoirs	
	2005	Environmental improvement around the east gate site	

	2007	Maintenance of the fortress wall at the east gate site, including repair and reburial	
	2011	Maintenance of the east gate site and visitor trail	
	2012	Repair of the drainage channel at the south gate site	
	2014	Construction of a landscape plaza	
	2021	Maintenance of the west gate site	
	2022	Reorganization of the visitor trail near the sluice of the southern fortress wall	
	2023	Maintenance of reservoirs, the west gate site, and building sites	
	2024	Maintenance of the area around the reservoirs and tree management	

이성산성의 활용은 보존·정비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성산성은 ‘위례둘레길’과 ‘위례역사길’에 연결되어 있어, 하남시 북쪽 한강 일대에서부터 산성 내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산성을 단독 유적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주변 역사문화 경관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하남 이성산성문화제는 역사·생태문화 체험, 가족 체험프로그램, 전통 무예 공연,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 방식이 비교적 다층적이다.²⁾ 이와 함께 하남역사박물관에서는 영상실감을 통해 이성산성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의 생생 국가유산 사업을 통해 ‘이성산성 오라실’, ‘삐뽀삐뽀 국가유산 응급실’, ‘가을 이성산성을 걷고 색을 입히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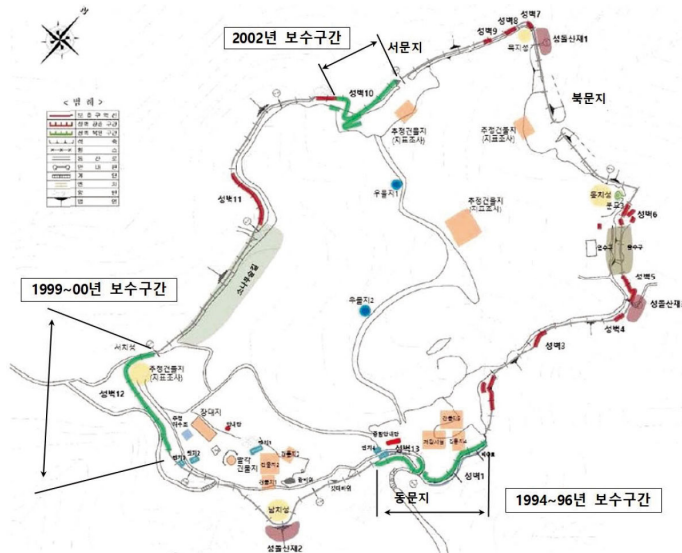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하남 이성산성은 발굴조사를 기초로 한 단계적 정비와 원형 훼손을 최소화한 보존 방식, 그리고 탐방로·박물관·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활용이 비교적 균형 있게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사와 정비가 상호 연계된 상태로 활용이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성산성은 한국 고대 산성 가운데 드물게 ‘조사-정비 연계형’의 성격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에는 정비 이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활용 콘텐츠의 심화가 병행되어야, 이성산성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성산성의 활용에서는 한강 유역이라는 입지와 고대 국가의 영역 지배 및 교통 통제와 관련된 역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위례둘레길과 역사길 등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는 단순한 탐방 동선의 확장이 아니라, 한강 유역의 역사적 중요성과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하남문화예술회관, <https://www.hnart.or.kr/artcenter/index.do>.

2. 이천 설봉산성

설봉산성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삼국시대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약 1,600m이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고대 성곽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fig 2] 이천 설봉산성 정비 현황도
(윤성호, 2021)
Map Showing the Current Status of Maintenance Work at Icheon Seolbongsanseong Fortress

이천 설봉산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포함하여 모두 7차례 이루어졌다. 먼저 1997년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산성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6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구조와 축성기술, 장대지, 건물지, 수구 등 주요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설봉산성의 구조와 운영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설봉산성의 보존·정비 과정은 조사와 정비의 선후관계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최초의 보존·정비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94년, 동문지 주변 성벽에 대해 시행되었다. 이후에도 2002년까지 성벽을 중심으로 정비가 지속되었으며, 성내 팔각제단의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도 병행되었다. 다시 말해 설봉산성은 고고학적 조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성벽과 주요 시설에 대한 정비가 먼저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한다. 2017년에 이르러서야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종합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는데(경기문화재연구원, 2017), 이는 기존 정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정비 방향을 체계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설봉산성의 사례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정착 이후 성곽유적 정비가 빠르게 확대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즉,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가시화하려는 요구가 앞서면서 충분한 조사와 고증보다 정비사업이 선행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봉산성은 조사 기반 위에서 정비가 이루어진 사례라기보다 초기 정비가 조사보다 앞섰던 사례로서 이후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보완이 모색된 경우이다.

설봉산성의 활용은 산성 자체의 독립적 프로그램보다는 산성 동남쪽 설봉호 일대에 조성된 설봉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봉공원 내에는 설봉서원, 영월암,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이천세라피아(세계도자센터)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산성을 중심으로 이천시의 역사와 문화, 예술 자원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설봉산 일대에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 일반 등산객의 방문이 자연스럽게 산성 탐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매년 여름 설봉공원에서 열리는 설봉산 별빛축제와 홀수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등은 외부 이용객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설봉산성 역시 이러한 문화관광 동선 속에서 함께

[table 2] 이천 설봉산성 조사 및 정비·활용 현황 Current Status of Investigation,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Icheon Seolbongsanseong Fortress

Category	Year	Description	Institution
Investigation	1997~1998	Survey of the fortress wall by section, surface survey, and first excavation of the command post site, building sites, and southern wall section	D a n k o o k University Central Museum
	1999	Second excavation of presumed building sites and the western fortress wall section	D a n k o o k University Institute of Buried Cultural Heritage
	2000	Third excavation of presumed building sites and the eastern fortress wall; surface survey of Bastions 1 and 2	
	2003	Fourth investigation of the presumed sluice site and fortress wall	
	2004	Fifth investigation of the expanded presumed sluice site and fortress wall	
	2005	Sixth detailed excavation of the fortress wall and Area A; trial excavation of the flat area near Kalbawi Spring	
Maintenance plan	2017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Icheon Seolbongsanseong Fortress	Icheon City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1994	Repair work on the fortress wall at the east gate site	
	1996	Repair of the east gate site and part of the eastern fortress wall	
	1999~2000	Repair of the southern fortress wall and maintenance of the octagonal altar	
	2001~2002	Repair of a 43 m section of the west gate site and installation of information boards	

소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천 설봉산성은 보존·정비의 측면에서는 조사 이전 정비가 선행된 한계를 드러내는 반면, 활용의 측면에서는 설봉공원과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비교적 우수한 접근성과 이용 기반을 확보한 사례이다. 따라서 설봉산성은 ‘정비 선행형’ 이면서도 ‘외부 자원 연계 활용형’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고대 산성에서 보존·정비의 적절성과 활용의 활성화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전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설봉공원과 주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활용 기반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으나, 산성 자체가 지닌 고대 이천 지역의 방어 거점이자 교통·생활권을 조망하던 장소로서의 역사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활용에서는 설봉공원의 문화·예술 자원과 산성의 고대사적 의미를 분리하지 않고, 이천 지역의 장기적 역사 형성과 공간 구조를 이해하는 통합적 콘텐츠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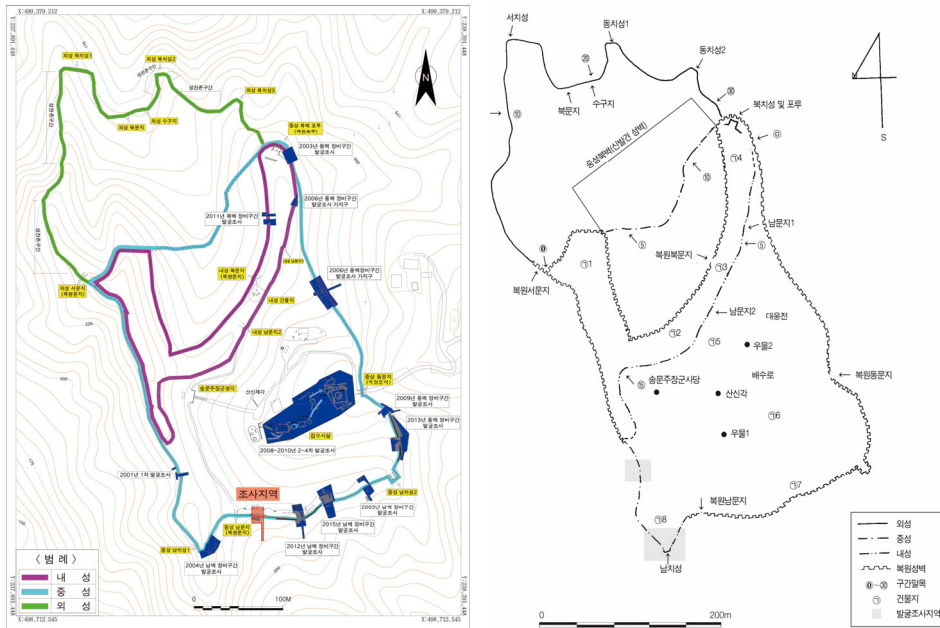
3. 안성 죽주산성

죽주산성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에 위치한 전체 둘레 약 1,688m의 석축산성이다. 현재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죽주산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2001년 산성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죽주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운용된 산성으로 파악되었고, 그 구조 또한 내성은 조선시대, 중성은 신라시대, 외성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복합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죽주산성이 단일 시기의 유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증·개축과 재편이 이루어진 복합 산성임을 보여준다.

[table 3] 안성 죽주산성 조사 및 정비·활용 현황 Current Status of Investigation,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Anseong Jukjusanseong Fortress

Category	Year	Description	Institution
Investigation	2001	Surface survey: exposure and trenc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we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Buried Cultural Heritage
	2003	Exposure and trenc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ea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2004	Investigation of the wall and upper part of the southern bastion of the middle fortress; investigation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southern and western walls adjacent to the southern bastion	

	2006	Exposure and trenc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collapsed sections of the inner fortress and the ea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Hanbaek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06~2007	Investigation of the water-collecting facility on the flat area inside the east gate site of the middle fortress	
	2008~2009	Investigation of Silla- and Joseon-period water-collecting facilities on the flat area inside the east gate site of the middle fortress	
	2009	Exposure and trenc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collapsed sections of the eastern and southern walls of the middle fortress	
	2010	Investigation of the water-collecting facility on the flat area inside the east gate site of the middle fortress	
	2011	Exposure and trenc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 collapsed section of the northern wall of the inner fortress	
	2012	Exposure and trenc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 collapsed section of the south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2013	Exposure and trenc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 collapsed section of the ea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2015	Trenc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 collapsed section of the south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2016	Exposure and investigation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 collapsed section of the south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Maintenance plan	2013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and planning for a themed historical park	Anseong City
	2015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1978	Maintenance of the southern wall and south gate site of the middle fortress	
	1980~1981	Maintenance of the eastern wall and east gate site of the middle fortress	
	1990	Maintenance of the ea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1993~1994	Maintenance of the western wall of the inner fortress	
	1995	Maintenance of the western wall and north gate site of the inner fortress, and the western wall and west gate site of the outer fortress	
	1996~1997·1999·2001·2003	Maintenance of the we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1998~1999	Maintenance of the northern wall of the inner fortress and the northern walls of the inner and middle fortresses	
	2003~2004	Re-maintenance of the ea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and maintenance of the we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2006~2008·2010~2014	Re-maintenance of the east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2009~2012·2016~2017	Re-maintenance of the southern wall of the middle fortress	
	2011	Re-maintenance of the northern wall of the inner fortress	
	2017	Maintenance of the water-collecting facility inside the middle fortress	



[fig 3] 안성 죽주산성 정비 현황도와 지표조사(2001년) 평면도(좌: 한백문화재연구원, 2018, 우: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Map Showing the Current Status of Maintenance Work at Anseong Jukjusanseong Fortress and Plan from the 2001 Surface Survey

그러나 죽주산성의 보존·정비 과정은 고고학 조사보다 정비가 훨씬 앞서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최초의 정비는 1978년 중성 남성벽 및 남문지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3년까지 거의 매년 성벽과 문지를 중심으로 보수가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중성 내부 집수지에 대한 정비가 1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초기 정비가 산성의 구조와 축조 양상에 대한 충분한 고고학적 조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내성 북성벽을 중성의 북성벽으로 이해하여 복원하였으나, 2001년 지표조사에서 실제 중성 북성벽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기존 정비가 잘못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정비 과정에서 성벽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실제 내성 북성벽의 성벽선이 원래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성과 중성이 접하는 구간에서 성벽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조사 이전의 정비가 단순한 해석 오류에 그치지 않고, 유적의 원형과 구조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된 이후, 2003년부터는 기존 정비 구간에 대한 재정비가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초기에 조사 없이 정비된 성벽을 다시 조

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조사 후 재정비의 과정을 통해 2017년까지 기존에 발굴조사 없이 정비되었던 성벽 대부분이 재정비되었다. 따라서 죽주산성은 조사 이전 정비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면서도 동시에 이후의 조사와 재정비를 통해 일정 부분 이를 시정해 나간 사례라 할 수 있다.

죽주산성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2015년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테마역사공원길, 수변공원, 잔디광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연차적으로 정비되어 이용객에게 개방되고 있다. 이는 산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공원화와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³⁾ 현재 안성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⁴⁾ 다시 말해 죽주산성은 물리적 이용 기반의 조성은 이루어졌으나,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활용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죽주산성은 초기 정비가 고고학 조사에 앞서 시행됨으로써 유적의 구조 해석과 원형 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사례이자 이후 발굴조사와 재정비를 통해 이를 일정 부분 보완해 나간 사례이다. 또한 활용 측면에서는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공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유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해석·전달하는 콘텐츠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죽주산성은 ‘재정비 보완형’ 이자 ‘활용 기반 조성형’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죽주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중·개축과 재편이 이루어진 복합 산성이라는 점에서 특정 시기의 유적이 아니라 지역 방어체계의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장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테마역사공원 조성 이후의 활용은 시설 기반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죽산 지역이 지닌 교통·군사적 중요성과 산성의 중층적 역사성을 해설·교육 콘텐츠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보은 삼년산성

보은 삼년산성은 충청북도 보은군 오정산에 위치한 전체 둘레 약 1,800m의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축조된 것으로 전하

3) 봉학원 “40억원 들어간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부실공사에 관리도 부실” 시사 안성 2019년 6월 19일, 2026년 4월 14일 검색, <http://www.sisaanse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

4) 안성시, <https://www.anseong.go.kr>.

며, 신라의 축성기술과 산성 운용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삼년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는 1976년의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동문지 2차 발굴조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성벽 구조와 문지, 수구, 아미지, 건물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삼년산성이 신라 산성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또한 더욱 분명해졌다.

[table 4] 보은 삼년산성 조사 및 정비·활용 현황 Current Status of Investigation,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Boeun Samnyeonsanseong Fortress

Category	Year	Description	Institution
Investigation	1976	Basic investigation	Boeun County
	1980	Excavation of the west gate site	Chungcheongbuk-do Province and Boeun County
	1982	Excavation of the presumed pond site and slui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1987	Excavation of the fortress wall structure and the northwestern bastion	Boeun County
	2003	Excavation of Amiji Pond and the well si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ungwo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2004	Excavation of the east, south, and north gate sites and building sites	Jungwon Heritage Institute Cultural Research
	2005	Excavation of the maintenance area around Amiji Pond	
	2006	Excavation of the southern fortress wall and the inner side of the eastern fortress wall	
	2007	Excavation of the inner side of the south gate site and the southwestern curved wall section	
	2010	Second excavation of the east gate site	
Maintenance plan	2001	Compilation of basic academic data for maintenance and restoration, establishment of a short-term excavation plan, and formulation of basic maintenance direction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ungwo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2006	Establishment of a long-term excavation and basic maintenance plan	Jungwon Heritage Institute Cultural Research
	2008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mountain fortresses in the central inland region and preparation of maintenance and restoration measures for their nominat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Korean Fortress Academy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1971·1976	Repair of a 45 m section of the western fortress wall	Boeun County

	1980~1982	Repair of a 15 m section of the western fortress wall	
	1983	Dredging of Amiji Pond	
	1987~1999	Repair of the western fortress wall section	
	2001	Tree management within the fortress	
	2002	Maintenance of visitor trails inside the fortress	
	2005	Maintenance of Amiji Pond and visitor trails	
	2015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theme park	
	2016	Construction of a blacksmith's tavern; repair of the bastion at the west gate site and maintenance of wooden stairs along the visitor trail	
	2017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exploration trail and removal of miscellaneous trees	
	2018	Establishment of exhibition rooms for the blacksmith's workshop and tavern;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basic data survey	
	2020	Maintenance of hazardous facilities, including stone embankments, within Samnyeonsanseong Fortress	
	2023	Maintenance of the fortress wall around the bastion at the west gate site and surrounding tree management; installation of facilities to prevent further wall collapse and rockfall	

그러나 이러한 조사 성과와는 별개로 삼년산성의 보존·정비 과정은 한국 고대 산성 정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삼년산성은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71년부터 서쪽 성벽 구간에 대한 보수가 시작되어 198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유적의 구조와 축성기술, 성돌의 형태와 결구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정비였다. 이후 1980년 서문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무분별한 정비는 중단되었고, 200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 학술자료 정리와 기본 정비 방향 수립이 본격화되었다(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이어 2006년에도 정비계획이 추가로 수립되면서(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삼년산성의 보존·정비는 점차 조사와 계획에 기반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초기 정비 구간의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발굴조사 없이 보수된 서쪽 성벽 구간은 원래의 성돌과 다른 석재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도 이질감을 주고 있으며, 원형 보존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삼년산성은 한국 고대 산성 정비가 제도적·기술적으로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보수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삼년산성은 활용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현재 문지와 성곽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벽 안쪽과 성내 탐방로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인과 해설사가 상주하는 안내소 등 기

본적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 탐방객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높다. 더불어 산성 주변에는 역사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 도로망 또한 잘 갖추어져 있어 도보 여행, 단체 답사,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우제 등 전통 행사가 개최되어 산성이 지역사회와 일정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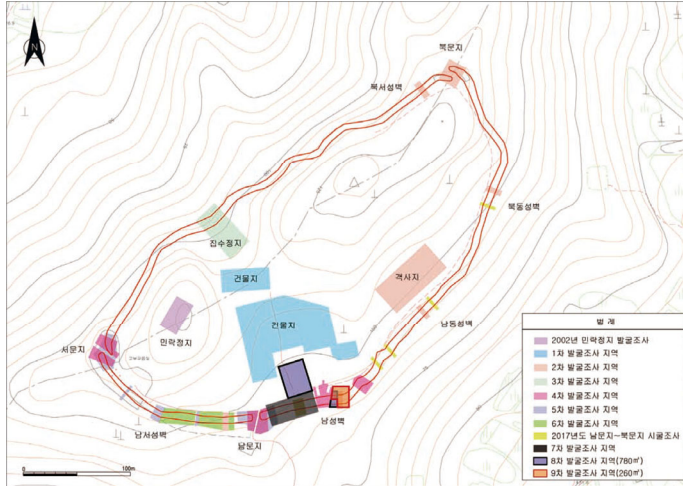
최근에는 국가유산청의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삼년산성 자연속에서 쓰담쓰담하다’,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 해요’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성곽 주변 야간 경관 조성, 탐방로 정비, 편의·부대시설 확충 등 탐방객을 맞이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삼년산성이 단순한 보존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은 삼년산성은 보존·정비의 측면에서는 조사 이전 정비와 원형 왜곡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이지만 활용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잘 갖추어진 기반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성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년산성은 ‘초기 정비 한계형’ 사례인 동시에 활용의 활성화가 비교적 진전된 ‘활용 선도형’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정비의 적절성과 활용의 활성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 사이의 불균형이 산성 관리의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삼년산성은 『삼국사기』에 축조 기록이 전하는 신라 산성으로서, 신라의 지방 지배와 중부 내륙 방어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성을 지닌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과 탐방 기반은 신라 축성기술, 중부 내륙 교통로, 지역 방어 거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결합될 때 산성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현재적 활용성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5. 정읍 고사부리성

고사부리성은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성황산에 위치한 전체 둘레 약 1,050m의 삼국시대 포곡식 석축산성으로,⁵⁾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사부리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2000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0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결

5)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은 2·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복문지 출토 ‘상부상항(上 上巷)’ 명 인각와, 집수정 출토 기마병 선각와, 신라 왕경의 6부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피관(本彼官)’ 명 기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자기와를 통해 현재 고사부리성은 처음 백제의 중방성이었다가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에 지속적으로 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영심, 2019; 황호식, 2022).



[fig 4] 정읍 고사부리성 발굴조사 현황도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3)

Map Showing the Current Status of Excavations at Jeongeup Gosaburiseong Fortress

과 민락정 건물지, 성내 건물지, 서문지, 남문지, 남서성벽, 남동성벽 등 주요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고사부리성의 평면 구조와 내부 시설, 성벽 축조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존·정비는 서문지에서 남문지까지 이어지는 남서성벽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남동측 성벽과 탐방로 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2030년까지 성벽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현재도 정비 중심의 관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사부리성 역시 보은 삼년산성 등과 마찬가지로 발굴조사보다 정비가 먼저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한다. 즉, 고고학적 조사와 충분한 고증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비가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정비사업이 비교적 선행하면서 이후 조사 성과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2019년 설계 과정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당시 성벽 높이를 추정하여 복원하려는 방안과 아직 조사되지 않은 성벽 구간까지 포함한 정비계획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문화재청 사적분과와 수리기술 및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⁶⁾ 그 결과 설계 과정에서 사업의 시작과 중지가 반복되었다. 이는 고사부리성의 정비가 단순한 보수 차원을 넘어 조사 성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까지 복원적 성격을 띠려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활용 측면에서 보면, 고사부리성은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에서 기우제, 대동놀이, 복원 성공 기원제

6) 홍재희 “정읍 고사부리성 성벽 문화재청 심의 문턱서 ‘털썩’ ” 대한지방자치뉴스 2019년 12월 05일, 2026년 4월 15일 검색, http://www.klan.co.kr/news_gisa/gisa_view.htm?date_m=07&date_y=2019&gisa_category=10010000&gisa_idx=56185&utm_source=chatgp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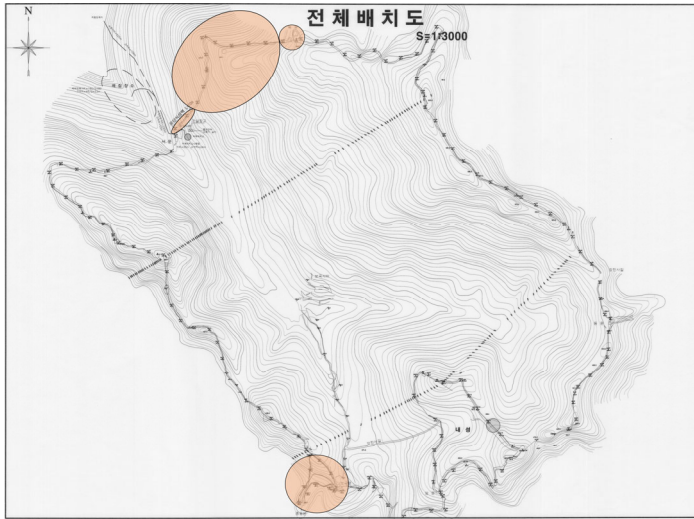
등과 같은 행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읍시는 현 단계에서 활용사업보다 정비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관리 방향 역시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사부리성은 활용보다는 물리적 정비에 중점을 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5] 정읍 고사부리성 조사 및 정비·활용 현황 Current Status of Investigation,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Jeongeup Gosaburiseong Fortress

Category	Year	Description	Institution
Investigation	2000	Surface survey of gate sites, wells, and building sites	Wonkwang University Museum
	2001~2002	Confirmation of the building site of Minnakjeong Pavilion	
	2003	Trial excavation confirming foundation stones, foundation stone alignments, and core-stone features related to building sites	Jeonbuk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04	Investigation of building sites and related features	
	2005	Investigation of the Three Kingdoms-period north gate site, the earliest fortress wall, and the Joseon-period guesthouse site; discovery of Three Kingdoms-period roof tiles inscribed “Sangbu Sanghang 上 上巷” at the north gate site	
	2006	Investigation of a water-collecting well, sluice site, and fortress wall; discovery of roof tiles inscribed “Bonpigwan 本彼官”	
	2010~2011	Investigation of the west gate site, south gate site, and southern fortress wall	
	2014	Investigation of the southwestern fortress wall	
	2018~2019	Investigation of the southern wall, northern wall, and sluice	Jeolla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20~2021	Investigation of the southeastern fortress wall, drainage channel, well, and building sites	
	2024	Investigation of the southeastern fortress wall	
Maintenance plan	2016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Jeongeup City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2010~2020	Maintenance of the southwestern fortress wall and west gate site	
	2019~2023	Maintenance of the southeastern fortress wall, visitor trail maintenance, and removal of miscellaneous trees	

정읍 고사부리성은 조사 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선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조사 구간과 추정 복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사례이다. 또한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프로그램이나 연계 사업이 부재하여, 보존·정비와 활용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사부리성은 ‘정비 중심 관리형’ 이자 ‘활용 미진형’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조사 성과를 기초로 한 정비의 재조정과 활용 전략의 본격적 모색이 요구된다.

6. 담양 금성산성



[fig 5] 담양 금성산성
정비 현황(국가유산청,
수정 후 인용)
Current Status of
Maintenance Work
at Damyang
Geumseongsanseong
Fortress

금성산성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산성리와 금성면 금성리 일대에 위치한 포곡식 산성으로, 해발 603m의 금성산을 중심으로 주변 봉우리 능선과 계곡부를 연결하여 축조되었다. 산성은 전체 둘레 6,486m의 외성과 그 남동쪽에 위치한 전체 둘레 859m의 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축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헌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92).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성산성은 담양군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산세 또한 험준하여 오랫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성 주변의 담양호, 추월산, 용추봉 계곡의 가마골 수련장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15). 이에 따라 1988년 지표조사를 통해 산성의 전체적인 규모와 구조가 파악되었고, 이후 2008년 성내 발굴조사, 2023~2024년 서문지와 보국사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금성산성의 고고학 조사는 장기간의 정비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

[table 6] 담양 금성산성 조사 및 정비·활용 현황 Current Status of Investigation,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Damyang Geumseongsanseong Fortress

Category	Year	Description	Institution
Investigation	1988	Surface survey identifying the scale, structure,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the fortres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08	Investigation of building sites, walls, and drainage channels	Honam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23	Investigation of the west gate site	
	2024	Investigation of the Boguksa Temple site	
Maintenance plan	1997	Establishment of a restoration and maintenance plan	Damyang County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1995~1996	Maintenance of the west gate site, barbican, and surrounding fortress wall	
	2001	Maintenance of the area around the south gate site	
	2002	Maintenance of the fortress wall around the west gate site	
	2004	Maintenance of the west gate site, north gate site, and surrounding fortress walls; re-maintenance of the area around the south gate site following flood damage	
	2012~2013	Maintenance of the north gate site, including the gate pavilion	
	2015~2016	Re-maintenance of the fortress wall	
	2017	Maintenance of the outer south gate, Chungyongmun Gate	
	2018~2019	Re-maintenance of the fortress wall	
	2020	Maintenance of the fortress wall between the north gate site and west gate site	
	2021~2023	Maintenance of the gate pavilions at the east and west gate sites	

보존·정비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문지와 성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수해로 붕괴된 성벽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서문지와 북문지 및 그 주변 성벽, 남문지, 외남문(충용문)과 주변 성벽 등에 대한 정비가 계속되었다. 또한 2012~2013년에는 북문지, 2021~2023년에는 동문지와 서문지 문루에 대한 정비가 각각 이루어졌다. 이처럼 금성산성의 정비는 전반적으로 성벽과 문지,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된 시설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의 상당 부분은 정식 발굴조사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2023년 서문지 발굴조사를 제외하면,

주요 정비 구간 대부분은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 없이 진행되었다. 즉, 금성산성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를 뒷받침할 조사 성과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였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성산성은 조사보다 정비가 앞선 산성 정비의 전형적 양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성산성은 호남 3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담양군에서는 이를 담양 10경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 방식은 주로 등산코스 소개에 머물고 있으며, 산성과 직접 연계된 지역축제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⁷⁾ 즉 금성산성은 높은 인지도와 우수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활용은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는 현재 담양군이 활용보다 정비사업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담양 금성산성은 문지와 성벽을 중심으로 장기간 보존·정비가 지속된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고고학 조사 성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활용 또한 등산 중심의 소극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금성산성은 조사보다 정비가 앞선 ‘정비 지속형’ 이면서도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해석과 전달이 미흡한 ‘소극적 활용형’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보존·정비의 지속성과 활용의 활성화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조사·정비·활용의 균형 있는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상 6개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관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사와 정비의 관계에서는 하남 이성산성과 같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정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반면, 이천 설봉산성·안성 죽주산성·보은 삼년산성·정읍 고사부리성·담양 금성산성처럼 정비가 조사보다 앞서거나 조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진행된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조사 이전 정비의 결과도 오정비 후 재정비, 초기 정비 구간의 이질성, 추정 복원 논란, 정비 지속과 조사 부족의 불균형 등 산성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아울러 보존·정비의 적절성과 활용의 활성화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된다. 하남 이성산성은 조사·정비·활용이 비교적 연계된 사례이지만, 보은 삼년산성은 초기 정비의 한계에도 활용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정읍 고사부리성과 담양 금성산성은 정비사업이 지속되는 데 비해 역사성과 장소성을 전달하는 활용은 미흡하

7) 담양군, <https://www.damyang.go.kr>.

다. 따라서 6개 산성의 비교 결과는 향후 산성 관리가 정비 여부나 활용사업의 유무가 아니라, 조사·연구·설계·시공·활용의 연계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Ⅲ. 고대 산성 보존·정비 및 활용의 한계

이상 살펴본 주요 사례는 보존·정비 및 활용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 한국 고대 산성의 관리 체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또한 드러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table 7), 첫째 고고학 조사와 충분한 고증보다 정비가 선행되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 둘째 원형 보존에 입각한 보수보다 외형적 복원과 현대적 시공 방식이 우선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활용이 산행·체험 중심의 획일적 형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원형 보존과 정비 방식의 한계, 그리고 활용의 한계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7] 주요 사례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Case Studies

Sit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and Maintenance	Level of Original-Form Preservation	Level of Utilization	Type
Hanam Iseongsanseong Fortress	Phased maintenance after investigation	High	Active	Investigation-maintenance linkage type
Icheon Seolbongsanseong Fortress	Maintenance preceded investigation	Limited	Linked with external resources	Maintenance-precedence type
Anseong Jukjusanseong Fortress	Re-maintenance after earlier maintenance	Low → improving	Foundation being established	Re-maintenance and improvement type
Boeun Samnyeonsanseong Fortress	Maintenance preceded investigation	Low	Active	Utilization-leading type
Jeongeup Gosaburiseong Fortress	Maintenance preceded investigation	Low	Insufficient	Underutilized type
Damyang Geumseongsanseong Fortress	Continued maintenance with limited investigation	Limited	Passive	Passive-utilization type

우선 성곽유적의 보존과 정비에 관한 지침은 1994년 문화재관리국이 발간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시방서에는 축성기술에 대한 조사, 원형에 따른 보수·정비, 성벽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제거라는 기본 원칙과 함께 성벽 해체 방법, 재료의 사용, 보수·정비 방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문화재관리국, 1994). 이후 2005년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개정 과정에서 성곽유적 정비에 관한 내용이 보다 보완되었고, 2009년 제정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그리고 2020년 개정된 「문화유산 현장」에서도 문화유산 보수의 기본 원칙이 재차 강조되었다(문화재청·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5). 이들 지침과 법령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핵심은 성곽의 전통적인 구조와 양식을 변형하지 않고, 원형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이 충실히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고고학 조사와 충분한 고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벽과 문



1. Boeun Samnyeonsanseong Fortress



2. Anseong Jukjusanseong Fortress



3. Plan of Dangseong Fortress, Hwaseong



4. Osan Doksanseong Fortress

[fig 6] 정비 성벽 붕괴 모습과 잘못된 정비 사례(1. 필자 촬영, 2·4. 윤성호, 2021, 3. 한양대학교박물관, 2021) Collapsed Section of a Maintained Fortress Wall and Examples of Improper Maintenance

지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보은 삼년산성은 1971년부터 1982년까지, 그리고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서성벽에 대한 정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성벽의 구조와 축성기술, 성돌의 형식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발굴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 결과 원래 사용되었던 석재와 다른 석재가 사용되었고, 정비 구간은 기존 성벽과 뚜렷한 이질감을 보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삼년산성은 오늘날 한국 고대 성벽 보존·정비의 실패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백종오, 2016: 294-295).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산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천 설봉산성의 동문지와 동성벽 또한 본격적인 발굴조사 이전에 정비가 시행되었으며, 안성 죽주산성의 중성 동·서·남성벽과 동·남문지, 내성 서성벽과 북문지, 담양 금성산성의 성벽과 문지 역시 대체로 조사보다 정비가 앞선 상태에서 보수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안성 죽주산성에서는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중성 북벽이 상상에 근거하여 정비되었다. 이 밖에도 화성 당성과 오산 독산성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대의 축성 재료와 증·개축의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비가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된다. 이들 사례는 모두 발굴조사 결과와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비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fig 6). 물론 이러한 정비가 제도와 기준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훼손되어 잃어버린 문화유산의 원형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사 이전 정비의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시행착오로만 볼 수 없다.

한편 지금까지의 산성 정비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잔존 높이를 보존하는 방식보다 성벽 상부까지 완성된 형태로 복원·정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복원된 성벽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붕괴하거나 구조적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대 성벽의 축조기술과 구조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석성의 경우에는 성벽의 외면을 이루는 면석과 내부의 뒷채움석이 서로 맞물리도록 결구해야 함에도 실제 정비에서는 면석 뒤에 잡석을 단순히 채워 넣는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공사비와 시공 편의성의 문제로 인해 성벽 하부까지 충분히 해체·조사하지 않고 상부만 넓게 해체한 후 정비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정비 이후 상부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김석순 2016: 72). 결국 구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정비는 시각적 복원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성벽의 안정성과 진정성을 동시에 해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삼년산성이나 온달산성 등 많은 산성들에서 정비 성벽이 외측의 탐방로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제

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또 하나의 문제는 정비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재이다.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은 가능한 한 기존 성돌을 활용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새로운 석재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보은 삼년산성, 음성 망이산성, 문경 고모산성, 정읍 고사부리성, 충주 장미산성, 춘천 봉의산성 등 여러 산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fig 7).



1. Eumseong Mangisanseong Fortress



2. Chuncheon Bonguisanseong Fortress



3. Jeongeup Gosaburiseong Fortress

[fig 7] 성벽 정비에 사용된 석재(1. 필자 촬영, 2. 유재춘, 2020, 3. 정읍시, 2016) Stone Materials Used in Fortress Wall Maintenance

원래 고대 산성의 성돌은 주변 지역에서 채석한 석재를 가공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색조와 재질, 가공 흔적이 해당 지역의 지질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정비에서는 경제성과 편의성으로 밝은색의 규격화된 화강암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정비된 구간은 기존 성벽과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이처럼 현대적 재료와 방식에 의한 정비는 성벽의 역사적 분위기와 장소성을 손상시키며, 결과적으로 산성이 지닌 문화유산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종합해 보면,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효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종합정비계획의 상당수는 향후 고고학 조사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각 산성이 지닌 고유한 축성기술과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외형상 정비 효과만을 강조하는 성벽 정비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후 재수립된 정비계획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원형 보존보다 정비의 가시성과 외형 복원에 치우친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결국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각 산성이 지닌 개별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산성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한계가 확인된다.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속에 활용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부 산성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남 이성산성과 보은 삼년산성은 국가유산청 지원 활용사업에 선정되어 산성 걷기, 체험 활동,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산성 관련 활용사업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산성 관련 사업이 비교적 많았던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유산청 활용사업을 살펴보면, 389건 중 성곽유적 관련 사업은 21건(약 4.8%)에 불과하며, 이는 산성 활용의 정책적 비중이 아직 제한적임을 보여준다(table 8). 더욱이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산행·걷기·체험 중심의 유사한 형식에 수렴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산성의 역사성과 구조적 특징, 지역사적 의미를 심화하여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table 8] 산성 관련 국가유산청 활용 사업 현황(2024년 기준) Current Status of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Utilization Projects Related to Mountain Fortresses, as of 2024

Region	Site	Program Theme	Format
Seoul	Hoamsanseong Fortress	Happy Walking at Hoamsanseong Fortress: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and the Environment	Hiking
		Hoamsanseong School: Living Hoamsanseong School / Children's Archaeology Class	Hiking +experience
		Living Hoamsanseong Festival	Experience +performance
Gyeonggi-do	Munsusanseong Fortress	"Peaceful Sensibility Hiking" to the Command Post of Munsusanseong Fortress	Hiking
	Haengjusanseong Fortress	Stories of History and Environment along the Haengjusanseong Fortress Trail	Hiking
	Iseongsanseong Fortress	Iseongsanseong Recreation Room / Walking through Autumn Iseongsanseong and Coloring It	Hiking
		Beep-Beep Cultural Heritage Emergency Room	Experience
Chungcheongbuk-do	Samnyeonsanseong Fortress	Plogging in Nature at Samnyeonsanseong Fortress	Hiking
		The Impregnable Fortress "Samnyeonsanseong" with a Blacksmith	Hiking +experience

Chungcheongnam-do	Garimseong Fortress	Impregnable Garimseong Fortress: Visiting Buyeo Mountain Fortress	Hiking
Gyeongsangnam-do	Bunsanseong Fortress	Together and Cheerfully: Making Seed Bombs! We Are the Bunsanseong Eco Guards	Hiking +experience
Jeollabuk-do	Jeoksangsanseong Fortress	Cultural Heritage Experience Tour: Jeoksangsanseong CAMP	Camping
		Cultural Heritage Experience Class: Jeoksangsanseong Story	Experience
Jeollanam-do	Marosanseong Fortress	Living Mountain Fortress Exploration Team	Hiking
Incheon City	Geyangsanseong Fortress	Plogging Walk at Geyangsanseong Fortress	Hiking
		Walking through the Fortress Village under the Moonlight	Hiking (night tour)
Daegu City	Yongamsanseong Fortress	Yongamsanseong Camp Forest: Two Days and One Night of Forest Relaxation	Camping
Busan City	Geumjeongsanseong Fortress	Geumjeongsanseong Guardians' Starry-Night Camping	Camping
		Geumjeongsanseong Map Exploration	Hiking
		Walking Festa: Mountain Fortress Map Exploration	Hiking

물론 산성이라는 유적의 입지와 공간 구조상 탐방과 산행이 활용의 기본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사업 주관 단체의 역량에 따라 내용과 수준의 편차가 크고, 장기간 동일한 형식이 반복되면서 콘텐츠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 또한 약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각 산성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윤성호, 2024: 144).

문화유산 활용은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거나 일회성 체험 행사를 운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유적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을 이용자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산성 활용은 양적으로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각 유적의 개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결국 한국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은 제도적 기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사보다 정비가 선행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둘째, 원형 보존과 고증에 입각한 정비보다 외형적 복원과 현대식 시공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종합정비계획 역시 각 산성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넷째, 활용은 일부 산성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획일적인 형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은 원형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조사·연구·정비·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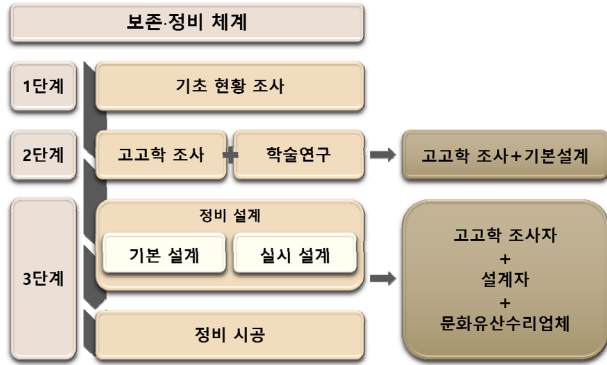
IV.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언

이상 여러 보존·정비 및 활용 사례를 통해 한국 고대 산성이 안고 있는 한계를 살펴해보았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의 산성 관리에서는 조사보다 정비가 선행되거나, 원형 보존의 원칙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채 외형 중심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활용 역시 일부 산성에 한정되어 있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획일적 형식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체계와 활용 방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존·정비의 체계 수립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는 단순한 개별 공사의 축적이 아니라 기초조사, 시굴·발굴조사, 학술연구, 설계, 시공, 사후관리, 활용 연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 속에서 운영할 때 비로소 적절한 방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대 산성의 관리 체계는, 첫째 현황과 훼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초조사, 둘째 축성시기와 구조적 특성 및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는 고고학 조사와 학술연구, 셋째 조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넷째 원형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시공과 정비, 다섯째 정비 이후의 지속적 점검과 유지관리, 여섯째 산성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활용의 단계가 상호 연계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산성의 보존·정비는 ‘조사 이후 정비’라는 단선적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조사·연구·정비·관리·활용이 순환적으로 연동되는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fig 8).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이다. 이는 단순히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 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루어질 보존·정비와 활용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산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현황과 훼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와 지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어 이러한



[fig 8] 문화유산 보존·정비 체계모식도
Schematic Diagram of th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System

기초조사를 토대로 시굴·발굴조사를 포함한 중장기적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기반으로 학술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축성 시기와 운용 주체, 구조적 특징과 축성기술을 종합적으로 해명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와 연구의 축적은 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후 보존·정비와 활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토대가 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산성 발굴조사에서는 성곽 전공자의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주처가 조사단에 성곽 전공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윤성호, 2021: 294-295). 물론 전공자의 참여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와 같은 인력 여건을 고려하면 모든 조사 현장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산성 조사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연속성과 현장에 대한 누적적 이해를 유지하는 일이다. 산성 발굴조사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 유적의 구조와 축조 양상을 점진적으로 밝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일 조사기관 또는 동일 조사단이 연속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이러한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⁸⁾ 실제 운영에서는 경쟁 입찰 중심의 방식이 우선되면서 조사 성과의 축적과 현장 이해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에는 산성 조사와 같이 연속성이 특히 중요한

8)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제3조(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③ 표본·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표본·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치가 필요한 경우.

유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가 축적되면, 다음 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존·정비 시스템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 과정은 크게 ‘설계’와 ‘시공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발굴조사 성과가 정비계획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연계 방식을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는 ‘기본설계’ 담당자가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발굴조사보고서를 통해 유적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윤성호는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체 정비를 담당하는 기관이 기본설계를 발주하여, 발굴조사 완료 후에 실시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윤성호, 2021: 300).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발굴조사 종료와 정비 시행 사이에 행정 절차, 예산 확보, 사업 승인 등의 문제로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정비를 염두에 둔 기본설계를 병행하고, 이후 조사 성과를 반영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원적 설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사 성과와 설계 간의 단절을 줄이고, 정비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공 단계에서는 발굴조사단, 설계자, 문화유산수리업체,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통합적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원래의 성돌 대신 새로운 석재가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설계 변경에 따라 정비 내용이 달라지고, 문화유산 보호의 원칙과 시공 편의성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 현장에 발굴조사 담당자와 설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처는 조사기관, 설계자, 수리업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2021년 국가유산청이 구성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와 같은 전문 심의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⁹⁾ 필요에 따라 성곽, 건축, 구조공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병행함으로써 정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결국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는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조사·설계·시공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체계 속에서만 비로소 원형 보존과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장을 두고 보수분과(건조물 수리), 복원정비분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수리), 근현대분과(근대 건축물·시설물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 3개로 나뉘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활용의 다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고대 산성의 활용은 양적으로 제한적일 뿐 아니라 산행·체험 중심의 유사한 형식에 머물러 각 산성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산성 활용은 방문객 유입 자체보다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구조적 특성을 이해·공유하게 하는 방향에서 개별 산성의 입지 조건과 주변 문화경관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유적이 지닌 유·무형의 가치를 이용자가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유적의 역사적 성격과 장소성, 주변 자연환경, 지역민의 수요와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문화유산 활용의 핵심은 관광객 유치 자체에 있지 않고, 지역민과 이용자가 유적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활용이 지역사회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활용 계획이 부재한 채 이루어지는 맹목적 정비와 복원은 오히려 유적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이한용, 2017a: 308; 2017b: 262), 반대로 정비와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문화유산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충실히 실현할 수 있다.

향후 고대 산성 활용은 무엇보다 각 산성이 지닌 역사성과 입지 조건, 주변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생태관광자원과의 연계이다. 산성은 산지와 능선, 계곡, 하천, 조망점 등과 결합된 입지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전제로 한 활용 방식이 유효하다. 생태관광은 자연 보전과 지역경제 기여를 동시에 지향하는 관광 방식으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중요한 관광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김봉근 외, 2021: 74). 예컨대 부여 가림성은 자연경관과 별 관측 명소로서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고, 인천 문학산성은 해돋이, 해넘이, 야경과 결합된 장소로 활용되면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산성이 지닌 자연 친화적 환경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자연 보전과 이용자 유입,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성 활용에서 생태관광자원의 개발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산성의 입지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핵심 방향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이다. 문화관광은 지역이 지닌 역사, 민속, 예술, 생활문화 등의 고유 자원을 관광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

경의 개선과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봉근 외, 2002: 74). 산성은 그 자체로 고대의 정치·군사·생활사와 결부된 역사문화자원이므로, 주변의 역사유적, 박물관, 전통행사, 지역문화 공간 등과 결합할 때 보다 풍부한 활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남 이성산성의 경우 위례역사길, 위례둘레길, 한강변 강변길과 연계되어 자연환경과 주변 문화유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생태관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산성 활용은 단일한 유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을 아우르는 복합적 문화관광 체계 속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활용의 구체적 실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유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table 9). 현재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유유자적’이라는 기조 아래 ‘생생 국가유산’,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문화재청, 2018; 2021: 452; 2023: 1).

[table 9] 국가유산청 운영 ‘국가유산 유유자적-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National Heritage Yuyujajeok: Local Nation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s” Operated by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ject	Description
Saengsaeng National Heritage Program	A program designed to lower the threshold of access to cultural heritage, enhance the quality of programs, and increase public happiness. It aims to rediscover the value and meaning of closed or dormant cultural heritage, recreate it as cultural content, and provide the public with opportunities to learn living history.
Hyanggyo and Seowon	A program that rediscovers the value of hyanggyo and seowon heritage sites, which commemorated former sages, cultivated talented individuals, and embodied traditional cultural identity. It seeks to inherit and develop humanistic and spiritual culture in a contemporary way and to offer integrated experiences of the wisdom and life of seonbi scholars.
Cultural Heritage Night Tour	A nighttime cultural heritage program based in areas where cultural heritage sites are concentrated. It uses distinctive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o provide nighttime viewing, hands-on experience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raditional Mountain Temples	A program that uses the cultural heritage and historical resources preserved in Buddhist mountain temples to provide heritage interpretation, lectures, hands-on experiences, performances, and other opportunities to enjoy temple heritage.
Historic Houses and Head Houses	A program that discovers and operates distinctive programs based on historic houses and head houses, encouraging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that is often forgotten in modern life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irect experience.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과 유산의 특성에 맞춘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성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걷기, 체험, 교육, 야간 활용, 가족 참

여형 프로그램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산성 활용의 구체적 모델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그러나 기존 활용사업을 단순히 답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타지역의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되, 이를 바탕으로 각 산성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와 구조적 특징, 입지 환경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즉 이용자에게 흥미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남녀노소 누구나 해당 산성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문화유산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각 산성만이 지닌 축성 배경, 운영 시기, 지역사적 역할 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의 개발은 획일적 활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성곽유적은 단순한 경관 자원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정치·군사·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는 공간이므로,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지역적 의미를 기반으로 활용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윤성호, 2024: 145).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주목되는 사례로는 자연재해로 훼손된 성벽의 보수와 그 의미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하남 이성산성의 ‘삐삐삐삐 문화유산 응급실’, 그리고 산성을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 인천 문학산성의 ‘미추홀의 안전한 녀석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산성을 단순히 과거의 군사시설로만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현대 사회와 연결 가능한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산성은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함께 존속해 온 문화유산이므로 그 보존과 활용 또한 지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할 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단순한 이용자의 위치를 넘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국가유산지킴이’가 있다.¹⁰⁾ 이는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의 보호·관리·활용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개인·가족·단체 등 다수의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이 정기적으로 산성을 모니터링하거나 탐방로를 점검하고 환경 정화 활동과 안전 관리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애착을 높이는 동시에 산성의 지속적 유지관리에 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10) 국가유산지킴이, <https://jikimi.khs.go.kr/jikimi/main/index.do>.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여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역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산성 일대의 환경 정화, 모니터링, 안내 활동 등을 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형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성 체험보다 지속성과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산성 활용의 중요한 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 프로그램이 아무리 참신하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문화유산은 결과적으로 방치되기 쉽다. 이는 다시 훼손과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활용사업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홍보, 지역 축제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 박물관·관광 안내 체계와의 통합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활용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박물관, 주민 조직 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의 기획·운영 역량 또한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 고대 산성의 활용은 단순한 체험 행사나 관광상품의 개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결합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한국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한국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와 활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조사와 정비의 선후관계, 원형 보존의 원칙, 정비 방식의 적절성, 활용의 차별성과 지속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많은 산성에서 고고학 조사와 충분한 고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벽과 문지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원형 훼손과 구조 해석의 오류, 현대적 재료의 사용에 따른 장소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발굴조사 성과가 축적된 이후에도 정비가 외형적 복원과 가시적 효과에 치우치면서

고대 성곽의 구조적 특성과 축성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시공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점은 보존·정비가 단순히 유적을 보기 좋게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유적의 역사적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고도의 해석적 행위임을 다시금 보여준다.

활용의 측면에서도 일부 산성을 제외하면 사업의 수 자체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산행과 체험 중심의 획일적 형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각 산성이 지닌 개별적 역사성과 구조적 특징, 지역사적 의미를 활용 콘텐츠 속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산성은 여전히 보존·정비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있으며, 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주민 참여, 장기적 운영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산성 활용은 양적으로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별 유적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고대 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은 조사와 연구를 기초로 한 통합적 관리 체계의 수립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즉, 기초조사와 시굴·발굴조사, 학술연구, 설계, 시공, 사후관리, 활용이 상호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전 과정에서 원형 보존과 진정성 유지가 최우선의 기준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활용 역시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의 확대가 아니라, 각 산성의 장소성과 역사적 의미를 현대 사회 속에서 재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성의 입지와 구조, 주변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의 개발,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적극적 활용, 지역민과 청소년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과 홍보 체계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한국 고대 산성을 대상으로 보존·정비와 활용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통해 조사·정비·활용의 불균형이 산성 관리 전반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고는 제한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한계를 지니므로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과 유형을 포괄하는 비교 연구와 활용 효과에 대한 후속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6.04.30, 심사개시일: 2026.05.21, 게재확정일: 2026.06.06.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7, 『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수원: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유산지킴이, <https://jikimi.khs.go.kr/jikimi/main/index.do>.
- 국가유산청, <https://www.cha.go.kr>.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진: 성곽·봉수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봉근·최래인·최범식, 2021, 「음성 망이산성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 『중원문화연구』 29: 35-82쪽.
- 김석순, 2016, 「성곽 보수 절차 및 제도 개선방안」, 『성곽 보존·관리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김영심, 2019, 「백제 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 백제문화』 33: 5-38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안성 죽주산성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담양군, <https://www.damyang.go.kr>.
- 대한지방자치뉴스, <http://www.klan.kr>.
-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47-1: 4-17쪽. <https://doi.org/10.22755/kjchs.2014.47.1.4>
- 문화재관리국, 1994,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청, 2018,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10주년 계기 자생력 강화방안 연구』,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21,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문화유산 유유자적-』,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23, 『2024년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 개요』,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5,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대전: 문화재청.
- 백종오, 2016, 「한국 성곽 문화재 보존 관리의 방안과 과제-인천 문학산성, 국가 사적 및 지방 기념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0: 291-328쪽. <http://doi.org/10.18347/hufshis.2016.60.291>
- 시사 안성, <http://www.sisaanseong.com>.
- 안성시, <https://www.anseong.go.kr>.
- 안신원, 2018,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고역사유적 활용방안 -경기 하남 이성산성의 예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48: 241-263쪽. <http://doi.org/10.18658/humancon.2018.03.48.241>
- 유재춘, 2020, 「한국 성곽 유적의 보수·복원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66: 213-253쪽. <http://doi.org/10.33252/sih.2020.9.66.213>
- 윤성호, 2019,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보수정비와 향후 전망」, 『선사와 고대』 60: 137-165쪽. <http://doi.org/10.23024/pah.2019..60.137>
- 윤성호, 2021,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 정비와 진정성 유지 방안」, 『선사와 고대』 67:

273-306쪽.

- 윤성호, 2024, 「서울지역 고대 성곽유산의 활용사업과 활성화 방안」, 『동아시아고대학』 73: 121-153쪽. <http://dx.doi.org/10.17070/aeaas.2024.3.73.121>
- 이한용, 2017a, 「국내외 문화유적 활용사례를 통해 본 한국 대중고고학의 가능성과 역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303-308쪽.
- 이한용, 2017b,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백제문화』 56: 255-270쪽. <http://doi.org/10.35300/bjclab.56.0.201702.255>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3, 『정읍 고사부리성(8~9차)』, 전주: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정읍시, 2016,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정읍: 정읍시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보은 삼년산성: 발굴정비 기초설계 보고서』, 청주: 중원문화재연구원.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삼년산성: 기본자료 및 종합 보존 정비계획 안』, 청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하남문화예술회관, <https://www.hnart.or.kr/artcenter/index.do>.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8, 『안성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V) 내 유적』, 성남: 한백문화재연구원.
- 한양대학교박물관, 2021, 『당성-화성 당성 성벽보수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박물관.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9, 『하남 이성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 수원: 한울문화재연구원.
-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담양 금성산성』, 광주: 호남문화재연구원.
- 황호식, 2022, 「고사부리성의 변천과정 연구」, 『전북학연구』 6: 177-221쪽.

References

1.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An, Shin-won. 2018. "The Utiliz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to Strengthen the Ident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Culture : Focusing on the Example of Iseong Sanseong Fortress in Hanam, Gyeonggi Province." *Humanities Contents* 48: 241-63. <https://doi.org/10.18658/humancon.2018.03.48.241>.
- Baek, Jong-oh. 2016. "Plans and Tasks for the Fortress Management as Korean Cultural Assets - Focusing on Comparison of Munhak Fortress in Incheon with National Historic Sites and Regional Monuments."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60: 291-328. <https://doi.org/10.18347/hufshis.2016.60.291>.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ungwon Cultural Institute. 2001. *Samnyeonsanseong Fortress: Basic Data and a Draft Comprehensive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Plan*. Cheongj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ungwon Cultural Institute.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8.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Self-Sustainability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gional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2021. *400 Selected Regional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s of 2021: Leisurely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2023. *Overview of the 2024 Open Call for the Regional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motion Project*.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Myŏngji Taehakkyo Pusŏl Han'guk Kŏnch'uk Munhwa Yŏn'guso. 2005. *Standard Specifications for Cultural Heritage Repair*.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Buried Cultural Heritage. 2002. *Surface Survey and Excavation Report of Jukjusanseong Fortress, Anseong*. Seoul: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Buried Cultural Heritage.
- Gyeonggi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7. *Seolbongsanseong Fortress: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Suwon: Gyeonggi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 Hanbaek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 2018. *Archaeological Remains within the South Wall Maintenance Section (V), Jukjusanseong Fortress, Anseong*. Seongnam: Hanbaek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
-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9. *A Study o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Iseongsanseong Fortress, Hanam*. Suwon:

-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Hanyang University Museum. 2021. *The 6th Excavation Report of the Dangseong Fortress in Hwaseong City*. Seoul: Hanyang University Museum.
- Honam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Geumseongsanseong Fortress, Damyang*. Kwangju: Honam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Hwang, Ho-sik. 2022.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Gosaburiseong Fortress." *The Journal of Jeonbuk studies* 6: 177-221.
- Jeolla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23. *Report on the excavation of Jeongeup Gosaburi Fortress (8th-9th)*. Jeonju: Jeolla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 Jeongeup City. 2016.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Gosaburiseong Fortress, Jeongeup*. Jeongeup: Jeongeup City.
- Jungwon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2006. *Samnyeonsanseong Fortress, Boeun: Basic Design Report for Excavation and Maintenance*. Cheongju: Jungwon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 Kim, Bong-geun, Rae-in Choi, and Beom-sik Choi. 2021. "Plan of th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for the Eumseong Mangyisanseong." *Journal of Jungwon munhwa* 29: 35-82.
- Kim, Seok-sun. 2016. "Improvement Measures for Fortress Repair Procedures and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Fortres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aejeon: Conservation Policy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Kim, Young-sim. 2019. "The Installation of Jungbangseong and the Administration of Gobu Region in Baekje." *The Journal of Mahan-Baekje Culture Research Institute* 33: 5-38.
- Lee, Hanyong. 2017a. "The Possibilities and Role of Korean Public Archaeology Seen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Heritage Site Util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41st 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303-8.
- . 2017b. "Basic Direction of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DeokjinSanseong Fortress." *The Journal of Paekche Culture* 56: 255-70. <https://doi.org/10.35300/bjclab.56.0.201702.255>.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Dictionary of Korean Archaeology Castles·Signal Fires*. Daeje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1994. *Standard Specifications for Cultural Heritage Repair*. Seoul: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 Ryu, Ho-chul. 2014. "Expanding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and Classifying the Types." *Munhwajae* 47 (1): 4-17. <https://doi.org/10.22755/kjchs.2014.47.1.4>.
- Yoo, Jae-choon. 2020. "A Study on the Repair and Restora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n Castle (or mountain fortress)." *Studies in Humanities* 66: 213-53. <https://doi.org/10.33252/sih.2020.9.66.213>.
- Yun, Seong-ho. 2019.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Prospect of the Repair Works of Achasan Forts." *Prehistory and Ancient history* 60: 137-65. <https://doi.org/10.23024/pah.2019..60.137>.
- . 2021. "A Study on the Maintenance of the Authenticity and Repairing the Mountain fortres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Prehistory and Ancient history* 67: 273-306.
- . 2024. "Uti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Ancient Fortress Heritage in Seoul." *The East Asian Ancient Studies* 73: 121-53. <https://doi.org/10.17070/aeaas.2024.3.73.121>.

2. Database

- Anseong City. n.d. Accessed June 15, 2026. <https://www.anseong.go.kr>.
- Damyang County. n.d. Accessed June 15, 2026. <https://www.damyang.go.kr>.
- Hanam Arts Center. n.d. Accessed June 15, 2026. <https://www.hnart.or.kr/artcenter/index.do>.
- Korea Heritage Service. n.d. Accessed June 15, 2026. <https://www.cha.go.kr>.
- Korea Heritage Guardians. n.d. Accessed June 15, 2026. <https://jikimi.khs.go.kr/jikimi/main/index.do>.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n.d. Accessed June 15, 2026. <https://www.law.go.kr>.
- Korea Local Autonomy News. n.d. Accessed June 15, 2026. <http://www.klan.kr>.
- Sisa Anseong. n.d. Accessed June 15, 2026. <http://www.sisaanseong.com>.

Abstrac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Ancient Korean Mountain Fortresses

Kim, Bonggeun

(Research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ancient Korean mountain fortresses and identifies their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cases. Six fortres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Hanam Isöngsansöng, Ich'ön Sölbongsansöng, Ansöng Chukchusansöng, Poün Samnyönsansöng, Chöngüp Kosaburisöng, and Tamyang Künsöngsansöng. The analysis focuses on three aspects: the sequence of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and maintenance work, the methods of maintenance and the degree to which original features were preserved, and the content and sustainability of utilization programs.

The results show that, in many cases, maintenance work was carried out before sufficient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and historical verification had been completed. They also indicate that authenticity and sense of place were often weakened by appearance-oriented restoration and the use of modern materials. In addition, insufficient coordination among investigation, design, and construction revealed structural problems that undermined the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practices. In terms of utilization, although some fortresses have implemented relatively active programs, the overall number of such projects remains limited, and many continue to rely on standardized formats centered on hiking and hands-on activit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futur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ancient Korean mountain fortresses should be grounded in a systematic management framework based o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and research.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eserving original features and authenticity, while differentiated utilizat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reflec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sense of place of each fortress.

Keywords: ancient Korean mountain fortresses,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heritage utilization, fortress remains, cultural heritage